

빛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sup>34)</sup>

3. 현대 교회내에서 “예언적 발언”을 하는 현상과 방언, 은사의 출현, 교파를 형성하고 있는 단체는 교회가 직면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요구를 뿌리치지 않을 것이다. 공공연하게 점잖을 빼는 현상은, 종교개혁이후 알려저온 바와같이, 교회조직과 신학의 기반을 흔들어 놓으려고 위협하고있다. 신약 성경신학이 이 질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신약신학의 점진적인 구조가 이 문제에 특이한 시각을 어떻게 제공해 주고 있는가? 현대 교회는 성경신학이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명히 현대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된 여러가지 또 다른 문제들을 언급할 수 있겠지만 언급된 이 분야로 말미암아 중요한 신약신학에 대한 현대 교회의 요구가 밝혀진다. 참으로 이러한 앞으로의 사명은 흥미진진한 것이다.

## 구약의 역사적 본문에 대한 설교 작성법

C. Trimp

신득일 역('85년 졸업)

우리는 설교 준비 과정을 네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

- I. 분석
- II. 종합
- III. 관련짓기
- IV. 점검

### I. 분 석

이 첫 단계에서는 본문의 주석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발견을 하는데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 1.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유용하게 설정해야 한다.<sup>2)</sup>
- 2. 그 이야기의 고유한 장소와 의미를 주어진 문맥 속에서 설정해야 한다.

주석하는 자는 이 이야기를 관점으로 사용하여 문맥을 두루 살펴 보아야 한다. 즉 뒤로, 옆으로, 앞으로 보아야 한다.

뒤로: 성경의 각권이나 성경의 문맥안에 있는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의 배경을 드러내는 것.

예) 유다의 열왕 중의 한 사람(예, 히스기야)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 때에 보여 주셨던 것처럼 왕직에 대한 표준을 무시해서는 안된다(왕하18<sup>3)</sup>).

34) Ernst Käsemann이 최근에 다룬 "Paul and Israel" in *New Testament Question of Today*(London: SCM, 1969), pp.183-87을 참고하라. Käsemann의 또 다른 유용한 본문은 "모범적인 의미"의 하나로서 바울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할을 제한시킴으로써 훼손되었다.

1) 이 글은 화란 캄펜 신학교의 설교학 강의인인 "De preek"의 후편에 해당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책을 각주로 사용하고 있다.  
C. Trimp, *DE PREEK*, "설교학 강의", 고서회, 신득일, 한만수공역,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1986).

2) C. Trimp, 설교학 강의, pp. 23-24.

앞으로 : 그 이야기는 사건이 발생한 그 시대의 문화와 역사 속에 배치하기를 시도하는 것.

예) 이스라엘 왕들의 타락에 대해서 설교할 때 설교자는 본문이 이야기하는 순간에 정치적, 군사적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추구해야 한다(예, 왕하 13<sup>3</sup>) 이 밖에도 설교자는 우상 숭배와 형상 예배가 왜 저항하지 못할 그런 영향을 끼쳤는가를 자문해야 한다(왕하 17<sup>7</sup>이하).

앞으로 : 설교자는 각 성경책이나 그 이야기의 경향에 대해 물어보아야 한다. 주께서 여기서 짧고 긴 기간 동안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 속의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가?

예) 온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반대에 대하여 성경에 많이 언급 되었다(참고, 신32, 수24, 사2<sup>6</sup>이하, 왕하 17<sup>7</sup>이하, 시78, 105, 106등)<sup>3)</sup>.

## II. 종합

이러한 분석을 함으로써 본문의 의미를 임시적으로 탐구한 후 의도적으로 종합하기 위해 그 이야기에 접근한다. 분석의 마지막 단계와 연결하여 이 종합은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무엇을 계시하시는가를 요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본문에 두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1. 그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룻기에 나오는 이야기에 관련된 H.J. 스킬더의 방법은 일반적으로 본보기로서 사용할 수 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 : 그의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심.<sup>4)</sup>

성자 하나님의 사역 :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한 그 분의 오심.

성령 하나님의 사역 : 하나님의 백성을 한데 모으고 보존하심과 믿음, 회심, 견인을 통하여 구원(위로, 경고, 격려)을 충실 시키신다.<sup>5)</sup>

2.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도 있고 또 살아야 하는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는 신실한가? 그는 역경과 자신의 부족함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거역하는 자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가? 그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죄임을 받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러한 역사관에 대한 많은 예를 두고 있다.

이 종합의 결과로서 이제 그 이야기의 구속사적 의미를 확정하거나 초점

3) H.J.Schilder, *Het schrift dat niet verslijt*, (Kampen, 1983, p.137이하)

4)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 10째주의 주제.

5) H.J.Schilder, *Richteren en Ruth*; een vacature vervuld, (Kampen: Vitgeversmaatschappij J. H. kok, 1982).

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홀버다(B. Holwerda)가 공식화했던 질문이 유용할 것이다.<sup>6)</sup> 그는 본문을 검토하기 위하여 네가지 관점에서 조언을 주었는데 그것은 이미(already), 아직 아니(not yet), 더 이상 ~않다(no more), 그리고 여전히(still)이다.

예)

이미(already)

하나님과의 교제는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증보 사역과 성령의 사역으로 인한 풍성한 교제였다. 그러므로 그 전에 살았던 사람은 그 후의 사람들 보다 부족한 교제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사역을 아주 많이 알았는데 예를 들어 시드기야 보다도 더 많이 이해했다(비교, 창6-9, 왕하 24<sup>19</sup>), 이삭의 탄생으로 인한 아브라함의 기쁨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이었다(비교, 요8<sup>56</sup>). 아직 아니(not yet) : 제자들은 모세보다(출 33<sup>19</sup>) 아버지의 영광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보았다(요1<sup>4</sup>, 비교, 눅 10<sup>23,24</sup>); 아론의 죽음에 대한 애도는 그리스도의 불멸의 제사장직에 대한 신앙의 기쁨을 요청하고 있다(히7); 더 이상 ~않다(no more)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야 했던 것은 이렇게 일상 생활의 구체적인 관행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의도한 바가 무엇이며 그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신 14<sup>3-21</sup>). 이러한 봉사의 방식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행10<sup>9</sup> 이하, 갈2<sup>14</sup>이하, 골2<sup>16</sup>이하, 히8-10); 그러나 그 중심적 교훈은 아직 남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생활을 거룩하게 해야 할 것이다.<sup>7)</sup>

여전히(still)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의 언약적 요구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보다 광범위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계시하신 시대에는 우리에게 훨씬 더 강한 요구였다(히10<sup>26-31</sup>); 출애굽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기쁨은(출15) 성찬을 거행하는 신약의 교회에서 훨씬 더 크게 나타내야 한다.

## III. 관련짓기

앞서 말한 “묵상”이나 “설교학적 주석”<sup>8)</sup>중에 설교자는 우리 눈 앞에 있는

6) B.Holwerda, ...Begonnen hebbende van Mozes, ze dr.(Kampen: Copieer-inrichting van den berg, 1974) p. 111.

7) Belgic confession.

8) C.Trimp, 설교학 강의, pp.25-27.

구체적인 교회를 위하여 본문의 구체적인 메시지에 대하여 질문한다. “역사적 간격에 다리를 놓는 것”이 필요한데 이제는 이것이 중심적인 관심사가 된다. 이 단계는 설교 내용에 있어서 결정적 부분이다. 우리는 이 단계를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우선 “그때와 지금”사이를 연결시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그때와 지금 사이의 연속성(continuum)이라고 한다. 앞의 종합에서도 그런 경우를 보았듯이 그 연속성도 두가지의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이다.

a.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그때와 지금간의 연속성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 분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비교, 히13<sup>8</sup>).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는 진실함이 있으며 그 분의 신실함이 변치 않으시며 그분은 자신이 주신 말씀을 되돌리지 않으신다. 그 분은 자기 아들 안에서 궁극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으나 그 계시는 구약 성경의 자기 계시와 연속성을 보여 준다(비교, 히 1<sup>1,2</sup>). 그래서 우리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등과 같은 사람의 생활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분이 지금도 그렇게 행하시고 장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분은 “저희(앞에 언급한 인물들)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 하신다”(히 11<sup>16</sup>).

무엇보다도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주 오래된 성경의 이야기들을 읽어야 한다. 조상들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분은 현재에도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래된 이야기는 현재의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할 때만이 계시되고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b.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차원에서도 전 시대에 걸친 연속성을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성경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두드러진 행동과 반응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 자신은 그의 창조적인 노력과 궁핍, 기쁨과, 슬픔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이다. 또한 자기 자만, 죄로 인한 부족, 내키지 않음, 무능함, 근시안적임, 유희, 그리고 부패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옛 이야기를 현대식으로 말하라. 그러면 그것은 현대인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2. 다음으로 그때와 지금 간의 간격(distance)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지리적, 시간적, 문화적, 정치적 등의 형편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역사적인 차이는 구체화 되어야 한다(여기서는 “아직 아니”, 더 이상 ~않다” 부분과 비교하라) 이 간격을 잘 깨달았을 때 B.Holweda와 M. B. van't Veer가 적절하게 경고한 (과거와 현재를 무조건 연결시키는) 평준화와 증발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연속적인 기간 내에 있는 간격이지만 아직도 고려할 여지

가 있는 간격이다. 지금의 교회는 동일한 언약 속에서 살아 가지만 그 당시의 교회와 동일한 영역에 살지는 않는다. 우리는 바로 반 가현주의(anti-docetism)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현대 교회의 상황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3. 각 이야기마다 중심적인 의미와 방향 외에 거기에 종속되는 요소들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실제적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을 묘사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요소들은 종속적인 위치에서 현대 교회에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이야기가 역사 속에서 단 한번만 일어난 예외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었다면 그것은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의미와 요소의 특별한 구성을 지닌 이야기도 역시 일반적으로 인간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과 일반 등장 인물(주요 인물이 아닌)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로부터 유추, 병행,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것, 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을 현대의 청중에게 나타낼 수 있다. 그것은 그런 일반화될 수 있는 요소들은 이 이야기의 방향을 잡지는 않지만 그들의 위치에서 그 이야기에 적절한 기여를 한다. 연속성 안에 있는 간격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사람은 이 일반화 될 수 있는 요소들도 안전하게 설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억지로 하고, 증발해 버리는, 진부하고도 평준화된 평행선을 사용하지 말라 B. 홀버다의 경고를 받은 자는 본문의 모범적인 언어를 감출 필요가 없다<sup>9)</sup>. 종종 모범적 요소는 직접 지적할 필요는 없다. 이야기할 때 그 요소는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H.J.스킬더가 “그것은 틀릴 수 없는 일이다”(Het kan niet missen)고 한 중요한 논문에서 말한 바와 같다<sup>10)</sup>. 이것은 본문이 단 하나의 해석만을 요구하는 동시에 여러가지 용법(usus)을 허용하고 있는 구 시대의 견해와 관련된 것이다.

예)

① H.J.스킬더가 뱀엘에서 조롱한 아이들을 처벌한 엘리사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 조소를 언급하면서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풍자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날 극장에서 기독교 신앙과 구원에 대해 조롱하는 배우(de cabaret kultuur)를 만한다면 그것은 꼭 맞는 것이다<sup>11)</sup>.

② T. Dekker가 “노아는 족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언한다”는 주제로 창세기 9<sup>18-27</sup>에 대해서 설교했다면 이 주제가 본문의 구속

9) B. Holwerda, *op. cit.*, pp112-113.

10) H.J. Schilder, *Hoe lezen wij het Oude Testament?* in *Het Schrift dat niet verslijt*, (kampen: 1987) pp.1-37. 인용.

11) H.J.Schilder, *In Sion is het Woord nabij*, (Groningen: 1976 pp.52-53을 비교하라.

사적인 의미를 정당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 설교 중에 또한 노아가 술 취한 것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즉, “우리는 여기서 술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경고를 받는다. 술 마시는 것은 성경에 금지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술취하는 것은 금지된 것이다. 그리고 그 술이 노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술을 합부로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작용한다.” 그 설교의 이 부분은 결코 혼란스럽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술 문제를 다룬다고 해서 본문의 구속사적 의미를 깨닫는데 방해되지는 않는다. 술 문제는 그 이야기 속에서 그냥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은 틀릴 수 없는 일이다”. 이 부분을 “불법적인 모범주의”로서 실격시킨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것이다.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에서 “별거벗은 것”에 대한 귀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③ 설교가 밋세바와 관련된 다윗의 범죄를 다룰 때(삼하 11,12장) 다윗 왕조의 조상으로 또 예수님의 조상으로서의 다윗의 지위, 그리고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의 다윗의 직분을 언급해야하고, 또 다윗이 동방의 어떤 전제군주 모양으로 자기 직분의 권력을 오용한 것도 언급해야 할 것이다. 사실 이것은 핵심적인 요소이다. 동시에 우리는 다윗 개인의 슬픈 타락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탄은 성육을 사용하여 그를 죄에 빠지게 했다. 그때에 우리는 회중에게 신자들이 당하는 유혹과 자극, 범죄에 빠지는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다.<sup>12)</sup> 동시에 그런 요소가 없는 설교를 해서도 안된다. 시편 51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런 용법(usus)인 요소의 선택과 제시의 방법은 모두가 상황, 즉 청중들의 상황과 관련된 것이다. 결론코 우리는 평행선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서는 안된다. 또 우리가 겪고, 느끼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되는 본문을 성경에서 찾으려 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시대와 자신의 생활에서 나오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럴 때에 진정한 “수평선과 용해”(horizon-versmelting)<sup>13)</sup>에 까지 도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역사적 이야기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와 우리가 살고있는 세계까지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롬 15<sup>4</sup>, 딤후 3<sup>16,17</sup>).

#### IV. 점      검

설교·준비의 마지막 단계는 그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문법적 의미, 성경적 의도와 이야기에 종속되는 요소들을 회중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은 점검을 위한 질문을 하게 된다. 즉 이 요소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그것들은 서로 상반되어 있는가? 또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가? 바로크 음악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연속적인 베이스음(de basso continuo), 분명한 선율, 꾸밈음 반주와 대위법 등, 이 모든 것이 제각기 그 주제에 종속되고 그들 각자가 잘 작곡된 그리고 개괄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된다. 바로 이때에도 단순성과 명료성이 진리의 특징이라는 표현이 적용된다.

12) Dordt Kanon V, iv.

13) Gadamer의 해석학의 주제.

(신득일 번역 고재수 감수)

C.Trimp박사는 1961년부터 지금까지 화란 Kampen신학교에서 실천신학(ambtelijke vakken)을 가르친 교수이다.